동양제철화학, BW 대량매매 긍정적

삼성증권, 미국 OEP 소유 94만7867주 매매 … 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

삼성증권은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일부가 5월21일 시간외 대량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불확실성 해소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5월22일 분석했다.

송준덕ㆍ박진만 애널리스트는 “BW 물량 일부에 대한 시간외 대량매매가 이루어져 미국 OEP 소유 BW 316만주 중 30%인 94만7867주가 매매됐다”며 “거래가격은 전일 종가대비 7.6% 할인된 40만2000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매매가 7.6% 할인돼 거래된 점에서 단기적으로 차익거래 물량에 대한 수급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BW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보다 긍정적”이라며 “그동안 BW 관련 시장의 우려는 주가의 변동폭을 크게 만들었던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해외 장기투자자 위주의 성공적인 대량매매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220만주는 앞으로 90일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BW 관련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22>